

# “대학 체질 바꾸겠다”... 전북대, 학사구조 개편 방향 설명 “글로벌대학 30 사업 유치할 것”

“기본 방향은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 만드는 것  
100여개 이르는 학과 대폭 줄이고 전공 중심 학사구조로의 변화 모색 중”

“배를 꾸는 마음으로 대학의 체질을 바꿔 학생 중심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 30 사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17일 오후 2시 대학 본부 보직자들과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학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글로벌대학 30 유치 의지를 담은 전북대 학사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양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대학 학사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학생들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뼈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17일 오후 2시 대학 본부 보직자들과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학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글로벌대학 30’ 유치 의지를 담은 전북대 학사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백기태 기획처장은 학사구조 개편안 프레젠테이션에서 학문 분야나 모집단위별 광역화를 통해 단과대학 간, 그리고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유사 교과목을 통합 운영해 학생들이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둔 학사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00여 개에 이르는 학과를 대폭 줄여 기존 학과나 학부 중심

의 학사 구조에서 전공(트랙) 중심의 학사 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학사구조 내에서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맞춤형 전공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일정 수준의 학생 충원율을 확보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특히 이차전지나 수소에너지 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연계전공 학과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더불어 14개 시·군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발전연구소 운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해 지역발전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의 면모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전북대학교가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세계적인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전북대는 2일~10일까지 단과대학 순회간담회 및 15일 학생 대상 설명회 등 글로벌대학 30 사업 유치의 토대를 다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정은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17일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기념비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민주화 운동, 역사 그 자체”

전북대에서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6월 30일까지 대학 박물관 중앙홀서 추모 사진전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17일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 재학생 전북지역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세종 열사가 남긴 고귀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던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전북대 제1학생회관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가 건물에 진입한 7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날 불의에 항거하다 숨을 거둔 이세종 열사는 5·18 최초 희생자로 기록됐고, 이 희생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이세종 열사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1985년 제1학생회관 앞에 기념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이세종 광장이라 명명하고, 이후 매년 5·18 관련 단체들과 추모식을 열고 있다. 1985년 2월에

는 15년 만에 이세종 열사에게 전북대 명예학위도 수여됐다. 특히 전북대는 지난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세종 열사가 추락한 제1학생회관 도로변에 이를 일컫는 안내판을 다시 설치했고, 조만간 추진될 학생회관 개축사업을 통해 이세종 열사 기념공간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대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이세종 열사 추모 사진전도 개최한다.

양오봉 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세종 열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 그 자체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열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추진될 학생회관 개축사업에서도 이세종 열사의 기념공간을 마련하는 등 역사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민주광장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추모식이 열렸다. /정은성 기자

## 글로벌거점센터 대학 중심, 캡스톤 프로그램 활성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인 'APU (Asia Pacific University of Technology & Innovation)'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PU는 영국 DMU와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주대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인 UKM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과도 협약을 추진중이다.

전주대학교는 현재 세계인무역 협회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세계 11개 도시에 글로벌거점센터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주대는 이번 APU와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글로벌거점센터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교류 및 전공교과목과 연계한 리빙랩과 글로벌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 전주대, 말레이시아 사립대학 APU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는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인 'APU (Asia Pacific University of Technology & Innovation)'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활성화할 계획이다.

APU는 2004년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설립됐고 이후 민영화됐다. 아직까지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돼 있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IT분야 연구교류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 대학 학생들의 어학연수와 APU 학생들의 드론 기술 연수의 상호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양 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는 지역문화 기반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글로벌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로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세계시장을 향해 문을 열어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천원의 아침밥' 시작

우석대학교가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다.

‘천 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17일 아침 8시 문화관 지하 1층 우석관에서 남천현 총장은 이희원 부총학생회장(경철행정학과 4년) 등과 함께 배식을 도왔다.

우석대학교의 천 원의 아침밥 식사 가격은 5,500원으로, 학생 부담 1,000원 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전북도가 1,000원, 그리고 대학이 2,500원을 부담한다.

사업 운영 기간은 하계 방학 등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100명에게 식사가 제공되며, 사업 기간 중 4,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남천현 총장은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식비 부담을 줄이고 아침 식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학생들 모두 건강한 아침 식사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오늘 심은 나무, 대학과 함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수 심어

전주교육대학교는 17일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교내 캠퍼스 화단에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박병춘 총장과 주요 보직자 등 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참석해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수와 군산대학교 기념식수를 함께 심었다.

이장호 총장은 전주교대의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100년간 교육

을 밝힌 유구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목나무 1그루를 전주교대에 기증했다.

한편 개교 100주년 기념식수는 산딸나무이며, 군산대에서 기증한 수목은 주목나무다. 식수 앞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식수가 새긴 표지석이 설치됐다.

박병춘 총장은 “오늘 심은 나무가 전주교대와 함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행사에 함께한 군



산대학교와 협력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성장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계획 수립

#### 진단·예방·대응·사안컨설팅 지원·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성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적 진단 및 분석은 예방 중심 성 문제 실태조사 및

자체 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해 성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기관 자체 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에 반영해 조기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운영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을 조직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총괄 대책을 논의한다. 또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해 대상별 사안 접수 시 처리 절차에 따라 보고 및 사안 처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각급 기관(학교)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관련 컨설팅과 사안인지 후 처리 절차를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단’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을 의무화한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적업무 도움자료’ 제작·배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적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을 원하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적업무 도움자료를 제작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는 초·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나눠 제작하고, 입학 및 취학, 출결, 전입학 면제 및 유예 재취학 및 편입학, 수료·진급·졸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어려운 학적업무를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도식화하고, 절차 흐름도를 추가했다. 또 관련 근거와 Q&A, 관련 서식 등을 각 장별로 담았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그동안 일



선 학교에서 학적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학적업무 도움자료를 통해 학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관심있는 도내 학교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된 학교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5대 핵심요소인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안전을 반영해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 현장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이해와 실제 △국내 미래학교 건축과 공간조성에 대한 건축가의 시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이해와 추진과정 안내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5월 말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를 선정해 학교 구성원이 직접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형 학교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단 정해영 단장은 “학교 현장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공간 구성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